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2년 2월 8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2.8.(화)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2. 2. 7.(월)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이행과 구주통상과
담당과장	이경민 과장(044-203-5760) 서성태 과장(044-203-5660)	담 당 자	김미송 사무관(044-203-5764) 이기헌 사무관(044-203-5666)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추진 선언 및 핵심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K-콘텐츠 수출 확대, 양국 간 디지털 교역 활성화, 스타트업 진출 기대 -
- 한영 FTA 투자챕터, 디지털통상 챕터 신설 제안, CPTPP 가입 협의 -
- 양자 및 다자 공급망 강화를 위한 고위급 공급망 대화체 설치 -

1 제1차 한-영 FTA 무역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 발효 1주년('21.1.1 발효)**을 맞아 2.7(월) 오전 10시 30분 (영국시간 기준, 한국시간 2.7(월) 19시 30분), 런던에서 앤-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브렉시트 이후 최초**로 **제1차 한-영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함

* 한-영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한·영 정부간 협의체로 양국간 매년 교대 개최예정

□ 금번 회의는 지난해 **유엔총회 계기 열린 한-영 정상회담('21.9.20, 뉴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양국 통상장관은 ①**한-영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②**연내 개선협상 개시를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음. 또한, ③**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긴밀히 공조키로 하고, ④**한-영 핵심공급망 협력을 위한 전략적 MOU를 체결**함

* 양국 정상은 한-영 FTA의 안정적 운영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협상 방향 등 논의

❶ 양국 통상장관은 **브렉시트 이행과 동시에 발효**된 **한-영 FTA를 통해 한-영간 비즈니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었음에 공감하고,

- 한-영 FTA 발효 후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 **양국 교역이 전년대비 32.6%로 크게 증가**하고, 양국간 투자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 평가

※ 한-영 교역('21년) : 118억불(32.6%↑) / 투자('21년 1~3분기) : 139건, 15억불

- 지난해 우리 **對英 수출**은 **전기차, 승용차, 무선전화기 등 주요품목 수출 호조**로 전년대비 약 **33.3% 대폭 증가하여 60억불 기록,** 특히 **전기차는 전년대비 수출이 57% 증가**하여 **내연기관차를 추월**

* '21년 5대 수출품목(금액, 증가율) : 전기차(10억불, 57%), 승용차(9억불, 15%), 무선전화기(5억불, 37%), 백금(4억불, 112%) 건설중장비(2억불, 126%)

- 아울러 지난 1년간 **한·영 FTA의 수출활용률**은 약 **90%로, 국내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한-영 FTA의 특혜세율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 이는 2021년 상반기에 **런던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약 113건의 FTA 활용 컨설팅 旣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

❷ 양국 통상장관은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한-영 FTA 협정문*에 따라 **연내 한-영 FTA 개선협상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협상 개시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체 설치에 합의**함

* (협정문 제15.5조의2) 추가 자유화 추구 위해 FTA 발효 후 2년 내 협상개시 의무

- 향후 영측과 개선협상 계기에 **디지털, 공급망, 중소기업, 탄소중립, 팬데믹 대응 등 新통상규범 분야 협력 방안**을 반영해 논의할 예정

- 특히 여 본부장은 양국이 디지털 통상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현재 2개 조항에 불과한 **한-영 FTA 전자상거래 규범*을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수준**으로 대폭 보강**할 것을 제안함. 향후 **최신 디지털통상 규범 및 협력 조항** 도입을 통해, **K-콘텐츠 수출 확대, 양국 간 디지털 교역 활성화, 스타트업 진출**이 기대

*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적용, 전자상거래 이슈에 대한 양국간 대화 유지

** (디지털규범) 국경간 정보이전, 종이 없는 무역 등 // (협력) 중소기업, 핀테크, AI 등

- 아울러, 여 본부장은 현행 한-영 FTA에 투자챕터가 없는 점을 언급하며 개선협상을 통해 **한-영 FTA 투자챕터를 신설**할 것을 제안함. 앞으로 최신 국제동향을 반영한 투자챕터를 신설함으로서 양국간 **투자 보호강화**와 함께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현재 양국간 투자는 한-영 투자보호협정('76년 발효)을 통해 규율되고 있으나, 동 협정은 설립 전 투자 보호,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확보 등 최신 요소 미포함

❸ 양국 통상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CPTPP** 가입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함

- 우리나라와 영국은 2019년 한영 FTA 협상 과정에도 CPTPP 관련 정보 공유 등 협력해 온 바 있으며, 영국은 2021.2월 CPTPP 가입 신청 후 2021.6월부터 가입작업반을 설치, 현재 첫 번째로 CPTPP 가입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임

- 우리측의 3-4월경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 계획에 대해서 영국은 한국과 같은 아태지역의 대표적 통상 선진국이 CPTPP에 가입하는 것은 CPTPP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중요한 진전이라 평가하고 가입과정의 적극 지원을 약속

- 양국은 CPTPP가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투명한 아태 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통상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동 가입협상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며, **CPTPP 가입과 관련하여 양국 통상당국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함

❹ 양국 통상장관은 양국간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한-영 핵심 공급망에 대한 전략적 협력 MOU*」를 체결**함

* △(주체) (한)산업부-(영)국제통상부, △(목적) 안정적인 핵심 공급망 구축 협력, △(이행) 격년주기 고위급 대화체 및 실무 대화체 교대 개최, △(기간) 3년+3년

- 동 MoU를 통해 양국은 △**핵심 공급망** 관련 각국 **정책 정보 공유**, △교역·투자 등 **비즈니스 촉진** 협력 등과 더불어, △**특정 공급망**의 **위기상황 발생**시 양국 **민·관간 협력** 등 추진 기대

- 한편, 최근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등으로 산업용 백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런던금속거래소(LME) 중심으로 형성된 원자재 시장***을 통해 **한-영 공급망 협력도 강화**되고 있는 바, 이번 MOU를 기반으로 향후 **양국간 핵심 원자재 시장 정보 공유** 등 **협력**도 기대

  * 백금은 자동차 배출가스 처리장치 촉매 등 산업용 원료로 사용
  ** 백금 수입 통계:
  ①총 수입(억불) : ('19년) 11.3 → ('20년) 18.1 → ('21년) 29.8 (연평균 62% 증가)
  ②對영국 수입(억불) : ('19년) 0.4 → ('20년) 1.5 → ('21년) 6.2 (연평균 292% 증가)
  *** 영국은 세계 3위 백금 수출국이며, 남아공 등 백금 생산국에서 물량 확보, LME를 통해 거래 (국가별 백금 수출 비중('19, %, 출처: OEC): 남아공(23.6%), 러시아(16%), 영국 (12.6%))

- 여 본부장은 그간 양국이 **백신 등 바이오,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공급망을 구축***해온 만큼, 향후 **기존 공급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상호 호혜적**인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도 **함께 협력**할 것을 당부

  * (의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GSK, 2.3억불 규모 항체치료제 위탁생산 계약('20.5), △삼성바이오로직스-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치료제 등 위탁생산 기존 계약 3.8억불로 증액('21.12), (해상풍력) △세아제강지주, 4천억원 투자, 영국내 해상풍력 구조물 생산공장 건립중

□ 또한, 여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2030년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려는 의지를 강조하며, 세계 최초로 1852년 런던의 만국산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증기기관차 등을 출품하며 산업혁명 시대를 열었던 **영국의 지지를 당부**함

2 영국 하원 면담, 채텀하우스 세미나 참석 등 폭넓은 아웃리치 전개

□ 여 본부장은 영국 방문 계기, △**영국의회 방문**, △**싱크탱크 세미나**, △**통상전문가 간담회**, △**주요 언론인 면담** 등 **폭넓은 아웃리치를 전개**하며, 보다 긴밀하고 우호적인 한-영 통상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함

□ 먼저, 통상 분야에서는 최초로, **영국 하원을 방문***, **국제통상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소속 여야 의원들과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 **양국간 FTA, CPTPP,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백신 등 분야의 통상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 (일시·장소) 현시지시간 2.7(월) 16:00~17:00, 웨스트민스터 홀 상임위 회의실, (참석) 韓 통상교섭본부장 - 英 하원 ITC 소속 보수당, 노동당, 민주연합당 의원 7명

○ 양측은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방안** 등 **한-영 통상협력**과 더불어,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급부상한 **'무역과 환경'** 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진행

○ 특히, **우리나라의 신남방 정책과 영국의 인·태 전략** 등 아태 지역에 대한 양국의 관심이 높은 만큼, 민주주의, 자유무역, 다자체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향후 아태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 및 **CPTPP 가입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공감대 형성

□ 또한,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 발효 1주년을 맞이한 **한-영 FTA의 미래**와, 공급망·기술, 디지털, 탄소중립, 보건 등 **새로운 통상이슈 중심의 한-영 통상협력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함

* 1920년 설립된, 전 세계 6위의 싱크탱크, 국제 문제 전반에 대한 분석·연구·자문 등 수행
(출처: 펜실베니아 대학교 로더연구소, 2020 Global Go Think Tank Index Report('21.1))

** (일시·장소) 현지시간 2.7(월) 18:00~19:00, 채텀하우스
(참석 패널) 채텀하우스 크레온 버틀러(Creon Butler) 연구 국장, 데이비드 로렌스(David Lawrence) 연구원 등

○ 여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통상의 역할이** 전통적인 시장개방 및 교섭 중심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신통상이슈의 선제적 대응 등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 추진'** 및 **'한-영 핵심 공급망 전략적 협력 MOU 체결'** 등을 기회로 양국간 통상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

□ 한편, 여 본부장은 **런던정치경제대학(LSE)**과 **서섹스대학의 통상전문가**를 비롯해, 현지 주요언론사인 **Financial Times紙의 수석 외교 평론가, The Economist紙 편집장, The Times** 등과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통상 환경·전망, 다자주의 회복 등 다양한 통상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김미송 사무관(☎ 044-203-57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한-영 교역 현황

* 영국은 한국의 20위 수출국, 24위 수입국, 22위 교역국가('21.12월 기준)
한국은 영국의 18위 수출국, 22위 수입국, 20위 교역국가('21.10월 기준)

□ 교역 동향

○ '21년 한-영 FTA 발효 이후,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은 118억불로 전년 대비 32.6% 증가

< 한·영국 연도별 무역 현황(억불, 전년 동기대비 %) **>**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수 출	금액	49.0	47.3	57.8	73.9	62.9	81.2	63.6	55	45	60
	증가율	△1.5	△3.5	22.3	27.8	△14.9	29.1	△21.7	△13.3	△19.0	33.4
수 입	금액	63.7	61.9	74.5	61.3	52.1	63.2	68.1	42	44	58
	증가율	66.8	△2.7	20.2	△17.7	△14.9	21.2	7.8	△38.8	△4.8	31.8
무역규모		112.7	109.2	132.3	135.2	115.0	144.4	131.7	97	89	118
무역수지		△14.7	△14.6	△16.7	12.6	10.8	18.0	△4.5	13	1	2

□ 10대 수출입 품목

○ 수출: 전기자동차, 승용차, 무선전화기, 백금, 건설중장비, 자동차부품 등

○ 수입: 원유, 백금, 승용차, 의약품, 주류, 계측기, 항공기부품, 원동기 등

< 對영 10대 수출입 품목('21년 / 단위 : 백만불, %) **>**

순위	수 출			수 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전기자동차	1,008	57.0	원유	1,192	210.8
2	승용차	891	15.1	백금	622	317.5
3	무선전화기	499	36.7	승용차	422	△22.4
4	백금	444	112.3	의약품	373	△4.6
5	건설중장비	241	125.8	주류	162	28.1
6	자동차부품	204	26.3	계측기	143	2.6
7	항공기부품	192	△23.6	항공기부품	135	21.1
8	합성수지	168	95.6	원동기	127	0.4
9	아연도강판	159	64.0	농약	96	3.8
10	축전지	143	△18.6	분석시험기	84	15.3

* 자료 : MTI 4단위 기준, 무역협회

참고2 한-영 투자 현황

□ 英의 對韓 투자 (英⇨한국)

○ '21.9월 기준 영국의 對한국 투자 누적총액은 201.7억불로 **유럽 내에서 네덜란드에 이어 제3위 對韓투자국**

* EU 對韓 투자국('21.9년 누계, 억불) : ①和蘭(330) ②몰타(229) ③英(202) ④獨(175)

○ 산업별로는 금융·보험, 도·소매(유통), 화공, 기계장비·의료정밀, 운송용 기계, 여가·스포츠·오락 등 분야에 진출

* 주요 투자기업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맥쿼리(투자자문/증권/금융), 징콕스(금속) 등

< 최근 10년간 영국의 對韓 투자 현황 (단위 : 건, 백만불) **>**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9	총계
건 수	79	74	68	79	63	66	88	77	90	58	66	2,016
금 액	919	361	116	432	259	360	2,218	1,172	2,088	727	815	20,168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신고기준, 총계는 '65년 이후 누계

□ 한국의 對英 투자 (한국⇨英)

○ '21.9월 기준, 한국의 對영 투자 누적총액은 239억불로 영국은 **유럽 내 제 2위의 투자대상국**

* 한국의 對유럽 주요 투자국 ('21.9월 누적, 억불) : ①룩셈부르크(265), ②英(239), ③和蘭(215)

○ 투자 비중은 **제조업이 30%로 가장 높고**, 뒤이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도매·소매업 순으로 높음

* 對英 업종별 투자비중(%) : (제조)30 (전문과학기술서비스)19 (금융·보험)16 (도·소매)15
* 투자 주요 사례: NH농협, 英 상업용 오피스 '마블 아치 플레이스(Marble Arch Place)' 4,500억원 인수 ('21.12월)

< 한국의 對영국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백만불) **>**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9	총계
건 수	73	82	76	77	78	82	91	169	150	115	73	1,807
금 액	1,190	504	560	1,091	900	1,739	1,894	1,958	2,661	1,738	730	23,901

* 자료 : 수출입은행, 신고기준, 총계는 '80년 이후 누계

참고3 제1차 한-영 FTA 무역위원회 공동선언문

JOINT STATEMENT

The First Meeting of the Trade Committee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K"), held on 7th February 2022, London

His Excellency Mr. Yeo Han-koo, the Minister for Trade of Korea and the Rt Hon Ann-Marie Trevelyan, the Secretary of State for International Trade and President of the Board of Trade of the UK held the first Meeting of the Trade Committee under the UK-Korea Free Trade Agreement and affirmed the following:

1. We recognise that the Korea-UK FTA plays a significant role in strengthening bilateral economic ties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will provide a valuable foundation for expanding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and enhancing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in the two countries.

2. We adopted the Decision No. 1/2022 of the Korea-UK Trade Committee on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Trade Committee and the Decision No. 2/2022 on the Establishment of a List of Arbitrators of the UK-Korea FTA to further advance cooperation on implementation of the UK-Korea FTA.

3. We acknowledge that, subject to our respective domestic requirements, our two countries intend to launch negotiations with the aim of building upon the existing terms of the UK-Korea FTA to pursue mutual economic growth and enhance opportunities for businesses in our two countries.

4. We share the view that the Korea-UK FTA should be a future-oriented agreement further promoting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our two countries, by discussing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new trade-related issues and their possible inclusion in the agreement. We anticipate that the following areas may be discussed: digital trade, SMEs, global supply chains,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and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 We acknowledge that nothing in this joint statement will predetermine what is covered in the negotiations.

5. We have jointly decided to establish a working group, at a senior official level, to discuss matters relating to the Korea-UK FTA subsequent negotiations.

6. We also signed the MOU for Strategic Cooperation on Critical Supply Chains and jointly decided to establish a Supply Chains Dialogue between Korea-UK senior officials, setting out our commitment to strengthen bilateral and multilateral supply chains.

Done and signed on 7th February 2022 in London

Minister for Trade	*Secretary of State for International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President of the Board of Trade*
YEO Han-koo	Anne-Marie TREVELYAN

참고4 **무역위 공동선언문 (비공식 번역본)**

공동선언문

2022년 2월 7일 런던에서 개최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무역위원회

대한민국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영국 앤 마리 트래블리안 국제통상부 장관은 제1차 한-영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1. 통상장관들은 한-영 FTA가 양국 경제관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와 경제협력 증진에 귀중한 토대가 될 것임을 인지하였다.

2. 통상장관들은 한-영 FTA 이행 협력 증진을 위하여 무역위원회 의사진행규칙에 관한 결정과 한-영 FTA 분쟁해결패널 명부 구성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3. 통상장관들은 양국이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한-영 FTA 협정문에 따라 상호 경제 성장과 비즈니스 기회 확보를 위해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추진하고자 함을 확인하였다.

4. 통상장관들은 新통상의제의 논의를 통해 한-영 FTA가 교역 및 투자를 증진하는 미래지향적 협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디지털, 중소기업, 글로벌 공급망, 환경과 기후변화, 팬데믹 대응 등 논의가 기대되며, 금번 공동선언문이 협상에서의 논의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 통상장관들은 한-영 FTA 후속협상 개시에 관련된 의제 논의를 위해 국장급 협의체를 설치할 것에 합의하였다.

6. 통상장관들은 핵심 공급망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MOU에 서명하였으며, 양자 및 다자 공급망 강화를 위한 고위급 공급망 대화체를 설치하는데 합의하였다.

2022년 2월 7일 런던에서 선언되고 서명됨

대한민국	영국
통상교섭본부장	국제통상부 장관
여한구	앤 마리 트래블리안